“올바른 진상규명 지역사회 동참을”

여순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교육강사회·유족회 입장문 발표
여순항쟁 역사 바로 세우기 다짐

여순항쟁교육강사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항쟁순천유족회와 함께 지난 20일 오전 순천 여순항쟁탑에서 특별법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여순항쟁강사회 제공

여순항쟁교육강사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항쟁순천유족회와 함께 지난 20일 오전 순천 여순항쟁탑에서 특별법제정을 기념하고 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다시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여순항쟁 교육강사단과 순천유족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참배 후 다짐 결의 및 각계에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고 나아갈 길을 찾고자 모였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손 놓지 말고 특별법 개정에 앞장설 것, 행정당국은 적당한 행정주의로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 것, 유족들은 당당하게 요구사항을 주장할 것, 전남도지사는 실무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소임을 다할 것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군수 등 사회지도자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여순항쟁의 역사를 대하도록 할 것,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모두 합심해 여순특별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해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지역사회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순천YMCA, 순천언론협동조합, 평화나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 의지를 다졌다.

여순항쟁강사회는 지난 3년간 여순항쟁 역사 해설 및 교육 강사단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여순항쟁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나아 갈 화해와 상생의 미래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성진 기자

고흥우주천문과학관, 휴가철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은하수와 달 관측도 가능하고 다음 달 4일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을 맞아 특별관측회가 마련되는데, 사계절 중 여름밤에 가장 밝은 은하수를 배경으로 우리 전통 별자리에 등장하는 견우별과 직녀별을 하늘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고흥군은 이 기간 중 달이 뜨는 시기에는 관람객들이 카메라로 직접 달을 찍을 수 있도록 망원경과 장비를 지원하고 방문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에어로켓, 해시계, 태양계 모형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한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의 800㎜ 반사 망원경과 돔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전시실에는 앙부일구 등 고천문기기와 태양계체중계, 용오름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고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모형이 전시돼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고흥=진중언 기자

영암, 버스공영차고지·부대시설 조성 ‘총력’

영암군이 농어촌버스 업체의 차고지 부족과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부대시설 설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달 영암읍 영암야구장 주변 군유지(2,979㎡)를 활용해 최대 50여 대의 군내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버스공영차고지에 사무실, 휴게시설, 정비시설, 세차시설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3억 6,000만원을 신청했으며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현장지도

내달 12일까지 중점 기술 지원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른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지난해보다 덥고 국지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며, 2~3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 됐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폭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오는 8월 12일까지 ‘중점 기술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피해 우려 지역 농가와 시범 및 실증 농가를 방문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위에 약한 가축은 30도가 넘는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고온 스트레스가 시작돼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발육 저하, 번식 장애, 면역력 약화 등으로 폐사 위험성이 높아진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전기시설 점검, 축사 지붕 단열재 부착, 축사 내 환기 실시, 축사 지붕에 물 분무 장치 설치, 분뇨제거와 청결 상태 유지 등 폭염시 가축관리 요령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군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조도면 전체 노선 대상

진도군이 이달부터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도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원한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은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도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을 왕래하는 진도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전체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섬 주민이 아닌 진도군민들에게도 조도면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해 군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섬 관광 이용을 촉진시켜 섬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승선 시 1,000원으로 해상 대중교통인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진도=박병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 미풍라이스센터, 사랑의 쌀 200포 기탁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있는 미풍라이스센터(대표 박승원)가 최근 직원들이 손수 가공 포장한 500만원 상당의 쌀10㎏ 200포를 저소득가구에 전달해달라며 장흥군에 기탁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에 힘입어 최근 입주한 미풍라이스센터는 농산물가공제조업체로 우수 강소기업 도약을 꿈꾸고 있다.

박승원 대표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역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마음을 담아 직원들과 함께 기탁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광양제철, 도시락 배달 사업 발대식

광양제철소가 최근 중마노인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 발대식’을 갖고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나섰다.

도시락 배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됐다.

광양제철소는 지역 내 어르신 10명에게 도시락 제작을 맡기고 이를 포스코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들이 주 5회 홀몸 어르신 70가정에 배달한다.

이철호 광양제철 행정부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영암경찰, 김기태 감독 홍보대사 위촉

영암경찰서는 최근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을 영암경찰서 명예경찰 및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암경찰서 1호 명예경찰이 된 김기태 명예경위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현역시절 한라장사 10회, 백호장사 1회 등 12차례 장사에 등극했으며, 현재 영암군 민속씨름단 감독을 맡고 있는 씨름계의 거목으로, TV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고정 출연중이다.

김기태 명예경위는 “어렸을 때부터 경찰을 동경해 평소에도 경찰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았는데, 명예경찰로 위촉돼 너무 기쁘고 설렌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